일터불심 금년활동 '흑자'

직장불자회, 한해 살림살이 들여다 보니…

'살도 찌고 키도 컸다.' 2003년 직장불교는 안살림과 바깥살림 모두 '흑자' 수지를 맞췄다. '문화' 개념의 법회가 늘었고, 인터넷 클릭으로 일터불심이 달궈졌다. 단체 특성을 백분 살린 신행활동도 눈에 띈다.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 개발에 지혜가 모아졌고, 잘나가는 불자회의 벤치마킹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직장·직능불자회가 얼마큼 늘었고 신행패턴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살펴 봤다.

▼불자회 창립, '줄줄이' = 전국의 직장불자회 결성을 주도한 곳은 출범 3년차 동갑내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 이들 연합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온 공무원 불자 모임을 한 데 묶어냈다. 공불련은 12월 20일 창립한 광주광역시청을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을 뺀 전국 도·광역시청에 불자회 결성을 끝냈다. 또 경불회는 11월 19일 경북 구미시에 100호 불자회를 출범시켰다. 공불련은 올해 동안 울산, 금천구·구로구, 안양, 청주, 강원도청 등 10여 곳에 '공불련 깃발'을 세웠고, 경불회는 인천공항, 인천서부, 양평, 부여, 영천, 달서, 논산, 평창 등 15여 곳에 경찰불교 바람을 일으켰다.

전문직 직능불자회도 결성됐다. 올 4월 감정평가사 불자회가 첫 닻을 올렸고, 11월에 불교계 처음으로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밖에 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홍성, 영주, 마산, 창원, 진해 등에서 시동을 걸었고,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군산, 창원지역에 불자회를 창립시켰다.

▼신행패턴, 어떻게 변했나?= 변화의 양상은 다양했다. 기존 '경전읽기' 위주의 직장불자회 신행은 한결 강화되고, 자원봉사 활동은 정례화 됐다. 건교부, 철도청 구로승무소, 한국은행 등은 <반야심경>, <아함경>, <42장경>, <초발심자경문> 등 대·소승 경전을 망라해 불교공부의 깊이를 더했고,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금융단불자연합회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공불련은 올 11월 2일을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로 제정,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전국 250여 단위 기관불자회의 봉사활동을 한 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했다.

'문화' 개념의 법회도 늘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와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는 대덕 태전사, 청도 대흥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또 직장불자의 눈길을 끄는 '이벤트'성 법회가 증가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찬불가, 정근, 레크리에이션 등의 신행프로그램을 꾸준히 열어 불교공부에 재미를 더했다.

또 회사에 앉아 불교공부를 하는 직장불자가 늘었다. 자체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장불자들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불교계 소식과 동영상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불심을 달궜다.

이와 함께 일터신행 코드가 부분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족·소모임' 단위의 신행활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기법회 봉행 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성지순례지의 선택 폭도 넓히는 효과를 낳았다.

▼일터불심, '信바람' 이렇게 일으켰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직장불자회의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 개발에 있다. 틀에 박힌 형식을 깨는 법회를 선보이는가 하면 마케팅 기법을 응용해 직장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한국전력본사 반야회는 올 4월, 사내 전산망 홈페이지에 가입한 네티즌 600여명 잡기에 묘책을 마련했다. 네티즌 중 30%이상이 잠재적인 불자인 점을 감안해 가입 축하 메일 보내기, 600명 돌파 기념 선물 제공 등 포교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다. 선재마을의료회는 올 초 사이버 상에 '특별한 의사'를 투입해 OFF-LINE에서 가입한 신입회원들의 애로점에 대해 즉각적인 답 글을 올려주고, 또 다른 자원봉사 활동처도 소개해 줬다.

잘나가는 불자회의 성공사례를 닮는 벤치마킹 바람도 불었다. 대개 2년 미만의 직장불자회들이 단기간에 조직을 완비하기 위해 포교아이템·운영노하우를 배웠다. 지난 2001년 창립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는 세무사불자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커뮤티니,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착안해 올 5월부터 사이버 공간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을 개설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없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불자회의 '노령화' 현상이다. 이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직장불자회가 그간 조직 활성화의 핵심동력을 젊은 직장불자들에게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또 재정 자립, 지도법사의 부재 등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직장·직능불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층 눈높이에 맞는 신행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젊은층의 문화 코드에 맞는 '파티' 개념의 법회 마련 △취미·여가 활동 등의 소모임 결성 △사이버 법당 개원 등의 입체적인 신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동일지역 연합법회,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사암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등의 기존 직장불자회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포교의 거점인 전국의 불교회관을 직장불자회의 신행터전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직장불자회간 네트워크 구축, 범종단 차원의 지도법사단 구성 등이 요구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불자회 창립 줄줄이

공불련 10곳 경불회 15곳 새로 출범
감정평가사·조종사 불자회 결실

■ 신행패턴 다양화

경전읽기 더욱 강화·봉사 정례화
산사음악회 등 이벤트법회 늘어

그림/김영민

■ '信바람' 이렇게…

마케팅기법 관심 끌어들여
"잘 나가는 불자회 닮자" 벤치마킹

■ 풀어야 할 과제들

회원들 노령화·지도법사의 부재
지역별 불자회간 네트워크 필요

우리불자회는요

INI스틸 포항불자회

밝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서원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타행을 실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람 끝에 우리들은 뭉쳤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포항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죽림사 주지 향공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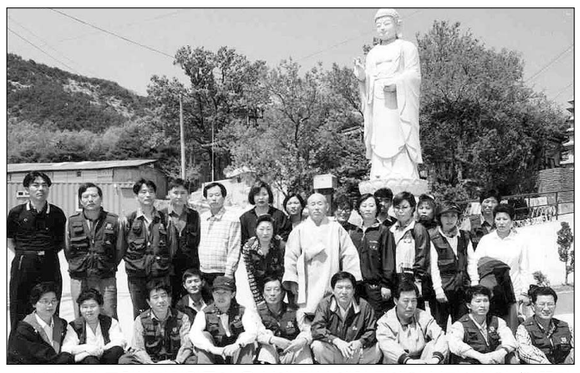
먼저 우리 회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철강산업 50년 역사를 가진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이 합병하면서 현재 INI STEEL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 식구는 80여 명으로, 노동조합지회장과 인력운영팀, 현장직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불교공부 열정은 대단합니다. 불자회 임원 모두가 포항불교대학을 졸업하는 등 불교기초교리에 밝고, 초대회장은 역임한 강현규 회원은 경북 포교사단 부단장을 맡아 왕성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명희 현 회장은 2000년도에 국가산업훈장을 수상해 회사업무와 불자회 활동에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그간 많은 신행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5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결식노약자 돕기 무료급식, 매월 정기적인 성금을 전달하고, 지체 장애자 마을 치자원, 경북 예천 연꽃마을, 노인복지시설 청하 정애원 등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정기법회도 빠짐없이 봉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포항시내 대성사에서 가족법회를 열고 있으며, 가을이면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철야정진 기도법회, 불교신행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공양>을 회사 동료들에게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의 힘은 연말 모금 운동에서 확인됩니다. '연말 불우 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모금'과 '작은 정성 큰 보람'을 구호로 한 셀프 구두 닦기 모금 활동 등은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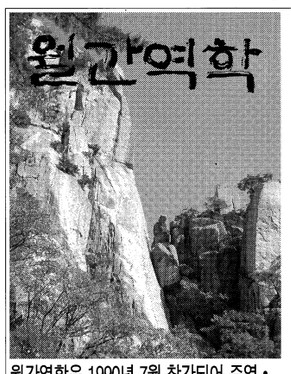


◇INI 스틸 포항불자회원들이 올 봄에 경북 예천 장애인 복지시설인 '연꽃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밝은 직장·향기로운 사회'가 신행목표
법요집 발행·합장인사운동 등 펼 계획

내년부터 우리 불자회는 (구)강원산업 법요집을 'INI STEEL 법요집'으로 개정·발행할 계획입니다. 회원 누구나 불교 법요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전의 이해도를 높여 회원들의 법회 참석률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또 '밝은 직장, 향기로운 사회'란 우리 불자회 기본 신행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합장 인사하기' 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회원 모두가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허남욱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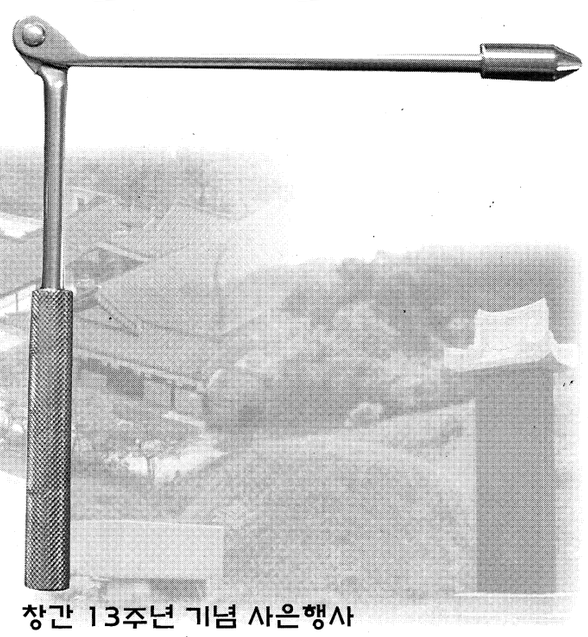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초·중·실전), 관상(마의상법)
풍수(금낭경), 수상, 육효
.12월 5일(금) 개강
과목당 월10만원(3개월단위접수)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케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모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띠면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 고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상당))무료증정.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